

취학전아동의 친사회적 행동과 어머니,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양육참여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f Prosocial Behaviors of Preschool Children, and Parenting Behaviors and Parenting Involvement of Mother and Father

인천대학교 소비자 아동학과

교수 장영애**

겸임교수 이영자***

Dept. of Consumer Science & Child Development, Univ. of Incheon

Professor : Jang, Young Ae

Conjunct Professor : Lee, Young J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mother's and father's parenting behaviors and parenting involvement on prosocial behaviors of preschool children.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149 preschool children and their parents(149 mothers, 149 father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SPSS12.0 program for frequency, percentage, t-test, ANOVA, Duncan's test, multiple linear regress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preschool children behaved prosocially more when their mothers or their fathers took warmth-acceptance of parenting behaviors. They showed lower prosocial behaviors when their fathers conducted more rejection-restriction or more permissiveness-nonintervention of parenting behaviors. Second, preschool children prosocially behaved more when their mothers and their fathers were more involved in parenting. Third, the most powerful predictor of prosocial behaviors was warmth-acceptance of parenting behaviors of their mothers.

Key Words : parenting behaviors, parenting involvement, prosocial behaviors, mother and father

I. 서론

인간의 다양한 행동 중 외적 보상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을 돕는 행동을 일반적으로 친사회적 행동(prosocial behavior)이라고 부른다. 이 친사회적 행동은 사회생활의 기본으로서 유아기에 이미 그 기초가 형성되므로(Kostelnik, Stein, Whiren & Soderman, 1993), 취학전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은 사회적 능력의 중요한 지표로 간주되어 왔다(Ladd & Profilet, 1996). 친사회적 행동의 정의는 학자마다 다양하여 이타행동, 도움행동, 친사회적 행동 등의 용어가 동일하게 또는 상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정현희, 1990). 또한

친사회적 행동의 범주에는 돕기, 나누기, 협력하기, 위로하기, 거부하기, 양보하기 등의 좁은 범주에서부터 다른 사람에게 관심보이기, 배려하기 등의 좀 더 넓은 범주에 이르기 까지 매우 다양한 범주가 있다(최윤정, 이기숙, 1999). 한국 유아교육학회 유아교육사전(1996)에서는 친사회적 행동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나타내는 긍정적 측면의 사회적 행동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 행동은 대개 돕기, 나누기, 위로하기, 협력하기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아동은 누구를 돕고, 보살피고, 위로하며, 누구와 협력하고, 합의할 것인지는 대상의 사회적 위치, 나이, 성, 우정, 필요의 정도, 공평성, 가치성 등의 복합적 변인들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이 논문은 인천대학교 2008년도 자체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제1저자

*** Corresponding author: Lee, Young Ja

Tel: 010-8886-3814

E-mail: noplace99@hanmail.net

한편 취학전 아동의 사회적 행동 특히 친사회적 행동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사회문화적 요인으로는 가정환경을 들 수 있다. 취학전 아동에 있어 부모는 최초로 관계를 맺는 대상이며, 부모가 제공하는 환경은 아동의 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의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된다. 취학전 아동은 먼저 부모로부터 외부세계에 대한 지식을 얻고 사회화의 기초를 형성하며 여러 가지 습관을 획득하게 된다(조복희, 1999). 그러므로 취학전아동의 사회성발달에 있어서 부모의 양육행동이나 양육참여도와 같은 가정환경변인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볼 수 있다.

최경순(1992)은 양육행동을 아동을 양육해 가는 과정에서 부모가 나타내는 보편적이면서 구체적인 행동의 질적 정도를 의미한다고 정의하였으며, 양육참여도를 부모가 아동양육을 하면서 함께 보내는 물리적, 신체적 상호관계에 대한 참여행동의 양적 정도의 의미라고 정의하였다. 부모가 유아를 양육하는 방식은 타인을 대하는 유아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유아 자신의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여러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이러한 부모의 양육방식은 취학전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 중 하나라고 하였다(이원영, 1983; Baumrind, 1971; Maccoby, 1980; McGraw, 1987). 그러므로 본 연구는 부모의 자녀양육의 질적, 양적 정도로서 부모의 양육행동과 양육참여도가 취학전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실제로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이원영(1983)은 어머니가 과보호적일 때 자녀는 퇴행적이며 의존성을 보이지만, 어머니가 수용적일 경우에는 높은 사회적 성숙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장영숙 등(2003)은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른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지만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하위요인인 자율적 태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친사회적 행동의 하위요인인 대인관계 형성능력에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자율적일 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김순애(2000), 박범혁(1999)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Cohn(1990)은 어머니의 애정적인 양육태도가 거부적인 양육태도에 비해 유아와의 애착형성이 잘 되고, 어머니가 애정적인 양육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나타내는 양육행동이 애정적이고 수용적이며 적절한 통제를 하고 합리적일 때, 아동은 높은 사회적 능력을 나타냈다고 한다(서동미, 1996 재인용). 권연희·박경자(1997)는 어머니가 온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이고, 통제의 양이 적고, 통

제의 유형이 추론적일때 아동이 친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하였다. 성숙란(2007), 정경화(2004)의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어머니가 온정적이고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할 때 아동이 친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보고하였으며, 이형덕(2000)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거부, 통제적 양육행동과 친사회적 행동이 부적 상관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이화용(1989)은 부모의 애정을 많이 받고 자란 집단의 아동은 정서적으로 안정적이고 사회적으로 승인된 행동을 보인데 반해, 애정을 거부당한 집단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주의를 끌기위한 행동을 많이 보임을 보고하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살펴볼 때 대부분의 연구들이 부모가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할수록 아동이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이나 양육태도와 친사회적 행동간의 연구는 많으나 어머니의 양육참여도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는데, 이는 자녀양육을 담당하는 역할을 주로 어머니의 역할로 받아들이고 아버지는 함께 놀아주는 등 자녀양육에 참여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최근들어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에 관한 연구는 좀 있으나 어머니의 양육참여도에 관한 연구는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므로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에 따른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을 비교분석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한편 Hoffman(1977)의 연구에 의하면, 취업모의 가정 이 늘어나면서 가정내의 전통적 성역할이 점차 변화되었으며,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증가하였다고 한다. 즉 현대사회는 가족의 구조나 기능이 변화됨에 따라 이전에는 어머니의 책임으로 간주되었던 아동양육 및 교육에 아버지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자녀양육 및 교육은 부모의 공동관심사 내지 책임으로 간주되어 가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문제의식과 맥을 같이하여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나 아버지의 양육행동, 그리고 아버지의 자녀양육에 대한 참여도 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몇몇의 연구에서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과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양육참여도의 관계를 보고하고 있는데 먼저 Bryant와 Crockenberg(1980)는 아버지가 애정적이고 온정적이면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을 발달시키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였으며, Mullis등(1983)은 아버지의 이성적 지도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과 높은 정적인 상관을 보인다고 하였다. 아버지의 양육태도, 교육수준, 직업과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본 조세영(2000) 연구에서는 아버지가 애정-자율적인 양육태도를 보일 때 아동이 친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보고하였다. 현대사회에서 친사회적 행동의 감소는 아버지 양육부재에 기인할 수 있

다는 비교문화 연구(정현희, 1990)를 비롯하여, 여러 경험 연구들은 아버지의 부재가 아동의 도덕성 발달을 저해함을 보여주고 있다(Daum, 1983; Stevens & Mathews, 1978). 김내식(2005)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애정적인 양육태도는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하위영역 중 도움주기, 공감하기, 나눠주기, 친절하기, 협력하기와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경우 성취영역에서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하위영역 중 도움주기와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양진숙(1991)은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애정적, 자율적, 사회적일수록,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애정적, 자율적, 성취적, 사회적일수록 친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아동양육에 아버지의 적극적, 자발적 참여도가 높아지면 부모자녀관계는 물론 부부관계, 아버지 자신의 개인적 발달에도 도움을 주게 된다(박성연, 1985). 또한 양육에 참여하는 아버지는 아동과 더욱 친밀해지고 그럼으로써 아동의 요구나 감정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다(Russell, 1982; Grosethy, 1978; 은주영, 류도희, 이귀옥, 2001 재인용). 정현희, 최경순(1992)은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결과,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의 예측 변인은 아동의 성, 아버지의 직접적인 양육참여인 생활지도와 놀이상대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감소의 한 요인이 아버지 양육참여의 감소와 관계가 있을 것(정현희, 1990)이라는 가정을 경험적으로 증명한 결과이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양육참여도에 따른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며 자율성을 인정해 주면서 동시에 자녀 양육에 참여할수록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김정신, 2000), 자녀의 이타심과 관대함을 기르게 되며 남아의 사회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Hoffman, 1971). 그리고 박정원(2003)은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도가 높은 상위 집단의 유아들이 대인 문제 해결 사고가 낮은 하위 집단의 유아들보다 긍정적 해결 방안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머니들이 하는 만큼 활동적인 참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녀양육에 있어 남성들과 여성들 간의 차이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윤서영, 1999).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이러한 시대적, 사회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자녀양육에 관한 연구는 어머니의 자녀양육만큼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양육참여도는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기존의 선행연구는 주로 어머니

의 양육행동이나 양육참여도, 아버지의 양육행동이나 양육참여도 각각의 변인과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를 분석했지, 양육행동과 양육참여도의 영향력을 동시에 분석한 연구는 드물었으며, 특히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양육참여도가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동시에 분석한 연구는 발견 할 수 없었으므로 이들 변인들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아동 발달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을 살펴보는 데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부터 형성되어 사회화의 중요한 기제가 되는 친사회적 행동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양육참여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혀 봄으로써,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양육참여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취학전아동의 친사회적행동의 발달을 돕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과 의의를 두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어질 연구문제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따라 취학전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어머니,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에 따라 취학전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셋째, 어머니,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양육참여도가 취학전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인천, 경기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유치원에 다니는 6, 7세 아동 149명과 그들의 어머니, 아버지 각각 149명, 총 298명이다. 연구대상을 6, 7세로 선정할 이유는 취학전 아동의 시기가 친사회성 발달에 기초가 되는 중요한 시기이며, 특히 부모의 보살핌과 부모의 행동의 영향이 큰 시기 이므로, 부모의 양육행동 및 양육참여도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을 사료되어 연구대상을 6, 7세 아동으로 하였다. 조사대상 아동의 연령은 6세가 70명(47.0%), 7세가 79명(53.0%)로 나타났으며, 성별은 남아가 72명(48.3%), 여아가 77명 (51.7%)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부모의 양육행동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박영애(1995)의 양육행동 척도를 취학전 아동에게 적합하도록 수정한 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평소 양육행동을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하위변인은 세 영역으로 분류된다. 이중 온정.수용(38문항)은 아동에 대한 애정표현, 수용, 존중, 관심과 참여 및 경험의 공유, 자율성 및 독립성 장려 등의 양육행동을 뜻한다. 거부.제재(30문항)는 아동에 대한 불만, 부정적 감정표현, 무시와 비하, 불신, 감정적 양육 등의 행위를 나타내며, 허용.방임(12문항)은 아동의 요구를 과다하게 수용해 주고 무책임한 방임 등의 행동을 나타낸다. 응답범주는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로 4점 리커트 척도이며, 척도의 신뢰도는 $\alpha=.77\sim.93$ 으로 나타났다.

2) 부모의 양육참여도 측정도구

부모의 양육참여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최경순(1992)의 척도를 취학전 아동에게 적합하도록 수정한 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세 영역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중 여가활동의 참여는 자녀와 함께 놀이기, 외식, 놀이터, 영화관 등에 함께 참여하여 시간을 보내는 활동을 말하며, 생활지도 참여는 기본적인 예절지도, 언행교정, 일상생활 습관 형성 등을 위해 도움을 주는 활동이며, 학습지도 참여는 아동의 과제 수행 및 유치원 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도움을 주는 활동을 말한다.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런편 이다', '아주 그렇다'의 5점 리커트 척도이며, 척도의 신뢰도는 $\alpha=.72\sim.79$ 로 나타났다.

3) 친사회적행동 척도

취학전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McGinnis와 Goldstein(1990)이 제작한 'Skill Situation Measure'를 이원영, 박찬옥, 노영희(1993)가 수정. 번안한 '친사회적 행동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취학전아동의 유치원적응능력, 대인관계조절능력, 개인정서조절능력 등 세 하위요인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유치원 적응능력은 집단생활을 통해 타인과의 예절을 지키고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며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회적 규약 안에서 타인과 잘 살고 집단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의미하고, 대인관계 형성능력은 자신과 타인과의 상호적 관계를 원만히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의

미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유지해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갈등을 경험하고 의견을 조정해 가는 능력을 의미한다. 개인정서 조절능력은 자신의 감정을 올바르게 인식하여 다른 사람이나 사회 분화에 대하여 적절하게 자신의 감정을 처리하고 변화시키며 유지, 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항구성은 각각 5문항씩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취학전아동의 문항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 자료로 되어 있고, 척도의 채점방법은 유아의 반응을 친사회적 반응에는 1점, 공격적 반응이나 무관련 반응, 무반응일 경우 0점을 주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친사회적 행동의 신뢰도는 $\alpha=.76$ 으로 나타났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조사에 앞서 질문지의 소요시간과 문항의 적절성과 이해에 어려움이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취학전 아동 15명과 부모 1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그 결과를 토대로 일부 문항의 용어가 취학전 아동에게 부적절한 것을 취학전 아동에게 맞게 수정, 보완하여 최종적인 도구를 구성하였다. 본 조사는 6, 7세 취학전 아동 220명을 대상으로 친사회적 행동을 1대 1면접법으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유치원 교사를 통하여 취학전 아동의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양육행동과 양육참여도를 측정하기 위한 질문지를 각각 220부씩 배부하여, 어머니, 아버지, 아동 쌍 중 하나라도 회수 되지 않은 질문지와 부적절한 질문지를 제외한 총 149쌍의 자료, 총 298부의 자료가 본 연구의 자료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통계처리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처리되었으며, 빈도, 백분율, t-test, F검증, Duncan검증,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해석

1.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따른 취학전아동의 친사회적행동 차이

먼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따른 취학전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각 하위변인 별로 점수의 분포에 따라 상, 중, 하 세 집단으로 나누어 친사회적 행동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따른 취학전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차이

친사회적 행동		유치원 적응능력			대인관계 형성능력			개인정서 조절능력			친사회적 행동총점		
		M	F	D	M	F	D	M	F	D	M	F	D
온정 수용	하	2.69		a	3.27		a	3.14		a	9.08		a
	중	3.00	22.89***	b	4.02	32.64***	b	3.82	21.72***	b	10.87	45.38***	b
	상	3.69		c	4.47		c	4.12		c	12.35		c
거부 제재	하	3.65		c	4.43		c	4.08		c	12.18		c
	중	3.02	19.58***	b	3.88	18.58***	b	3.67	10.60***	b	10.65	26.09***	b
	상	2.69		a	3.45		a	3.33		a	9.45		a
허용 방임	하	3.54		b	4.29		b	3.98		b	11.86		c
	중	3.00	12.98***	b	4.00	14.70***	b	3.80	10.49***	b	10.86	20.50***	b
	상	2.76		a	3.43		a	3.27		a	9.45		a

*** p<.001

D: Duncan test, a<b<c

<표 1>을 통해 살펴보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따라 친 사회적 행동은 하위변인 별로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온정수용 양육행동에 따라 유치원 적응 능력, 대인관계 형성능력, 개인정서 조절능력 등 모든 친 사회적 행동 하위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어머니가 온정수용적일수록 유치원 적응능력, 대인관계형성능력, 개인정서 조절능력 이 모두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어머니의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에 따라서는 유치원 적응능력, 대인관계 형성능력, 개인정서 조절능력 모두에서 유의한 차가 나타나, 어머니가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아동의 친사회적행동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에 따라서는 허용방임적 행동을 많이 보이는 상집단이 중이나 하집단 보다 친사회적행동 점수가 낮

아, 어머니가 허용방임적 행동을 보일수록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따른 취학전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각 하위변인 별로 점수의 분포에 따라 상, 중, 하 세 집단으로 나누어 친사회적 행동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따른 친사회적 행동을 <표 2>를 통해 살펴보면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따라 친사회적행동은 하위변인별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먼저 아버지의 온정수용 양육행동을 살펴보면, 아버지가 온정수용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취학전아동의 유치원 적응능력, 대인관계 형성능력, 개인정서 조절능력, 친사회적 행동 총점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아버지가 거부제재 양육행동

<표 2>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따른 취학전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차이

친사회적 행동		유치원 적응능력			대인관계 형성능력			개인정서 조절능력			친사회적 행동총점		
		M	F	D	M	F	D	M	F	D	M	F	D
온정 수용	하	2.59		a	3.22		a	3.08		a	8.88		a
	중	3.00	30.22***	b	4.02	35.23***	b	3.81	25.55***	b	10.87	56.17***	b
	상	3.70		c	4.44		c	4.13		c	12.35		c
거부 제재	하	3.68		c	4.44		c	4.14		c	12.28		c
	중	3.10	24.57***	b	4.12	32.45***	b	3.78	17.92***	b	11.10	42.80***	b
	상	2.66		a	3.31		a	3.24		a	9.19		a
허용 방임	하	3.56		b	4.35		c	4.04		b	12.00		c
	중	3.00	14.66***	a	4.00	19.50***	b	3.80	13.98***	b	10.86	26.49***	b
	상	2.75		a	3.38		a	3.23		a	9.35		a

*** p<.001

D: Duncan test, a<b<c

을 보일수록 유치원 적응능력, 대인관계 형성능력, 개인정서 조절능력 등 친사회적 행동 총점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아버지의 허용방임 양육행동의 경우, 아버지의 허용방임 양육행동이 중, 상인집단이 하집단 보다 유치원 적응능력이 낮게 나타났으며, 허용방임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대인관계 형성능력이 낮게 나타났고, 허용방임이 상인집단이 중, 하인 집단보다 개인정서 조절능력이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아버지가 허용방임적 일수록 취학전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총점이 낮게 나타났다.

2. 어머니,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에 따른 취학 전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차이

먼저 어머니의 양육참여도에 따른 취학전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어머니의 양육참여도를 각 하위변인 별로 점수의 분포에 따라 상, 중, 하 세 집단으로 나누어 친사회적 행동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보는바와 같이 어머니의 양육참여도에 따라 취학전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은 하위변인 별로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어머니의 여가활동 참여도가 높을수록 취학전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중 유치원 적응능력과 대인관계 형성능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여가활동참여도가 중, 상인 집단이 하집단 보다 개인정서 조절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생활지도 양육참여도의 경우, 어머니

의 생활지도가 상인 집단이 중, 하집단 보다 유치원 적응능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생활지도가 상, 중인 집단이 하집단 보다 대인관계 형성능력이 높게 나타났고, 어머니의 생활지도가 높을수록 개인정서 조절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생활지도 참여도가 높을수록 전반적인 친사회적 행동총점이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습지도의 양육참여도는 상인 집단이 중, 하인 집단보다 유치원 적응능력, 대인관계 형성능력, 개인정서 조절능력, 그리고 친사회적 행동총점 모두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어머니의 양육참여도 총점이 높을수록 취학전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총점도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에 따른 취학전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를 각 하위변인 별로 점수의 분포에 따라 상, 중, 하 세 집단으로 나누어 친사회적 행동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의 경우, 아버지의 여가활동 참여도가 높을수록 취학전아동의 유치원 적응능력, 대인관계 형성능력, 개인정서 조절능력, 친사회적 행동총점이 높게 나타났다. 생활지도의 경우 친사회적 행동 하위영역별로 다르게 나타나, 아버지의 생활지도가 높을수록 유치원 적응능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생활지도가 중, 상인 집단이 하인 집단보다 대인관계 형성능력과 개인정서 조절능력이 높게 나타났고, 아버지의 생활지도가 높을수록 취학전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총점이 높게 나타났다. 학습지도의 경우, 아버지의 학습지도가 상인집단이 중, 하인 집단보다

<표 3> 어머니의 양육참여도에 따른 취학전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차이

양육참여도	친사회적행동	유치원 적응능력			대인관계 형성능력			개인정서 조절능력			친사회적 행동총점		
		M	F	D	M	F	D	M	F	D	M	F	D
여가활동	하	2.65		a	3.35		a	3.25		a	9.24		a
	중	3.11	19.47***	b	4.00	23.33***	b	3.76	12.95***	b	10.98	30.50***	b
	상	3.61		c	4.41		c	4.06		b	12.08		c
생활지도	하	2.85		a	3.53		a	3.30		a	9.72		a
	중	3.02	7.68**	a	3.98	9.92***	b	3.70	11.78***	b	10.70	14.87***	b
	상	3.45		b	4.24		b	4.05		c	11.79		c
학습지도	하	2.98		a	3.74		a	3.38		a	10.14		a
	중	3.00	3.44*	a	3.79	4.85**	a	3.67	7.26**	a	10.46	7.55**	a
	상	3.36		b	4.22		b	4.00		b	11.64		b
참여도총점	하	2.72		a	3.38		a	3.24		a	9.36		a
	중	3.04	14.84***	b	3.92	22.27***	b	3.67	16.54***	b	10.65	29.66***	b
	상	3.55		c	4.41		c	4.13		c	12.14		c

* p<.05, ** p<.01, *** p<.001

D: Duncan test, a<b<c

<표 4>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에 따른 취학전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차이

양육참여도	친사회적 행동	유치원 적응능력			대인관계 형성능력			개인정서 조절능력			친사회적 행동총점		
		M	F	D	M	F	D	M	F	D	M	F	D
여가활동	하	2.63		a	3.33		a	3.22		a	9.16		a
	중	3.11	21.54***	b	4.00	25.63***	b	3.76	16.07***	b	10.98	35.47***	b
	상	3.63		c	4.43		c	4.10		c	12.16		c
생활지도	하	2.71		a	3.39		a	3.27		a	9.39		a
	중	3.15	15.77***	b	4.11	22.76***	b	3.85	13.78***	b	11.13	28.44***	b
	상	3.56		c	4.37		b	4.04		b	12.02		c
학습지도	하	2.89		a	3.64		a	3.29		a	9.87		a
	중	3.00	5.56**	a	3.79	7.31**	a	3.67	10.14***	b	10.46	11.41***	a
	상	3.40		b	4.25		b	4.02		c	11.72		b
참여도총점	하	2.64		a	3.32		a	3.25		a	9.23		a
	중	3.13	20.23***	b	4.13	24.43***	b	3.77	14.46***	b	11.06	32.16***	b
	상	3.61		c	4.33		b	4.08		b	12.08		c

** p<.01, *** p<.001
D: Duncan test, a<b<c

유치원 적응능력, 대인관계 형성능력, 친사회적 행동 총점이 높게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학습지도가 높을수록 아동의 개인정서 조절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총점의 경우, 아버지가 양육참여도가 높을수록 유치원 적응능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양육참여도가 중, 상인 집단이 하인 집단보다 대인관계 형성능력, 개인정서 조절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높을수록 취학전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총점도 높게 나타났다.

4. 취학전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관련변인의 영향력 분석

어머니,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양육참여도가 취학전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어머니, 아버지 양육행동 및 양육참여도 각각의 하위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이때 회귀분석에 포함된 각 변인들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r의 값이 .70을 넘는 변인이 없고, VIF(Variance

<표 5> 취학전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관련변인의 영향력

독립변인	유치원 적응능력		대인관계 형성능력		개인정서 조절능력		친사회적 행동총점	
	B	B	B	B	B	B	B	B
어머니온정수용	.00	.31*	.00	.36**	.00	.19	.00	.36**
거부제재	-.01	-.08	-.01	-.06	.00	.04	-.01	-.04
허용방임	.00	.12	.00	.23	.00	.19	.11	.22
아버지온정수용	.00	.11	.00	.04	.00	.21	.00	.15
거부제재	-.03	-.27*	-.02	-.15	-.02	-.24*	-.06	-.26**
허용방임	.00	.13	-.02	-.11	-.03	-.14	-.03	-.06
어머니여가활동	.00	.04	.00	.11	-.00	-.02	.00	.06
생활지도	-.01	-.05	.00	.05	.00	.21	-.06	.09
학습지도	-.03	-.07	-.05	-.12	-.04	-.09	-.03	-.11
아버지여가활동	.00	.01	.00	.04	-.01	-.06	-.00	-.00
생활지도	.00	.11	.00	.03	-.02	-.10	-.01	-.01
학습지도	.00	.06	.00	.08	.00	.19	.14	.13
R ²	.32		.37		.33		.49	
F	5.52***		6.84***		5.87***		11.36***	

* p<.05, ** p<.01, *** p<.001

Inflation Factor)계수도 1.367~2.836으로 나타나 회귀분석을 실시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친사회적 행동의 하위영역 별로 살펴보면, 먼저 유치원 적응능력의 경우, 어머니의 온정수용($\beta=.31$), 아버지의 거부제재($\beta=-.27$)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가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을 더 나타내고 아버지가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을 적게 나타낼수록 자녀의 유치원 적응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32%였다.

대인관계 형성능력의 경우, 어머니의 온정수용 양육행동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beta=.36$), 어머니가 온정수용적일수록 취학전아동의 대인관계 형성능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37%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정서 조절능력의 경우, 아버지의 거부제재 양육행동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beta=-.24$), 아버지가 거부제재를 많이 할수록 자녀의 개인정서 조절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33%로 나타났다. 친사회적 행동 총점에 있어서는 어머니의 온정수용 양육행동($\beta=.36$), 아버지의 거부제재 양육행동($\beta=-.26$)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온정수용적 일수록, 또 아버지가 무시하거나 비하하는 거부제재의 태도를 덜 보일수록 취학전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49%로 나타났다.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취학전아동과 그들의 어머니, 아버지를 대상으로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양육참여도에 따라 취학전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이 어떤 차이가 있으며,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양육참여도가 취학전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취학전 아동 149명과 그들의 부모 각각 149명, 총 447명을 대상으로 어머니,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양육참여도,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가 온정수용 양육행동을 많이 나타낼수록, 그리고 거부제재 양육행동과 허용방임 양육행동을 덜할수록 유치원 적응능력, 대인관계 형성능력, 개인정서 조절능력 등 친사회적 행동이 모두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여기서 어머니가 온정수용적 일수록 친사회적 행동이 높게 나타난 것은 이원영(1983), 장영숙등(2003), 권연희와 박경

자(1997), 성숙란(2007), 정경화(2004)등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부모의 양육행동이 수용적이고 온정적이면 아동이 사회성발달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Bate, Maslin, & Frankel, 1988; Cohn, 1990)과도 맥을 같이 한다. 그리고 거부제재 양육행동을 덜할수록 친사회적 행동이 높게 나타난 것은 꾸중 및 비난을 사용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Bryant et al., 1980)는 연구결과와 국내의 이형덕(200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아버지가 온정수용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취학전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이 높게 나타난 반면에 거부제재, 허용방임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친사회적 행동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Bryant와 Crockenberg(1980)가 아버지가 애정적이고 온정적이면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을 발달시키는데 도움을 준다고 한 것과 Daum(1983)과 Stevens, Mathews(1978)가 아버지의 부재가 아동의 도덕성 발달을 저해함을 보여준다는 것과 같은 맥락의 결과이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는 정도와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를 통제하는 양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과 부적 관계를 나타내었다(Maccoby, 1980; Sparks et al., 1984)의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국내 연구(박성연, 2002; 박혜경, 박성연, 2002; 손승희, 이은혜, 2004)에서도 부모가 온정적, 반응적, 자율적일 때 자녀의 사교성, 주도성, 친사회성이 증가하는 반면, 부모가 강압적, 통제적, 학대적, 방임적일 때 자녀의 공격성이 증가한다고 보고한 결과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즉, 어머니, 아버지, 모두 부모가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로 아동을 양육할 때 아동이 유치원에서 잘 적응하고, 또래와 원만한 관계를 맺으며 자신의 정서를 잘 조절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거부적이거나 제재를 가할 때, 그리고 허용적이고 방임을 할 때 위의 행동이 줄어들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어머니가 여가활동, 생활지도, 학습지도 등 양육참여도가 높을수록 유치원 적응능력, 대인관계 형성능력, 개인정서 조절능력 등 친사회적 행동이 모두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의 여가활동, 생활지도, 학습지도 등 양육참여도가 높을수록 취학전아동의 친사회적 행동도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정현희, 최경순(1992)과 김정신(2000)의 연구결과에서 아버지 양육참여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이 높게 나타난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어머니, 아버지 모두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취학전아동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행동, 양육참여도가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행동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사회적 행동의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어머니가 온정수용 적일수록, 아버지가 거부제재를 덜 할수록 자녀의 유치원 적응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가 온정수용적일수록 대인관계 형성능력이 높은 것으로, 아버지가 거부제재를 덜 할수록 개인정서 조절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사회적 행동 총점의 경우, 어머니가 온정수용적 일수록, 그리고 아버지가 거부제재를 덜 할수록 취학전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경우는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이, 아버지의 경우는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이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어머니, 아버지를 함께 대상으로 하고 같은 변인으로 연구한 선행연구가 없어서 그 구체적인 결과를 비교 할 수는 없지만 어머니,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함께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서로 다른 측면에서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발달에 영향을 미침을 나타내주는 결과라 생각된다. 즉, 가정의 양육에 관계되는 변인 중 어머니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온정수용적일수록, 또 아버지가 무시하거나 비하하는 거부제재의 태도를 덜 보일수록 취학전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한편 아버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행동, 양육참여도를 동시에 비교한 연구의 부재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비교 분석했으나, 본 연구 결과 양육참여도 보다 양육행동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양육참여도 보다 취학전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의미있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두 변인이 각각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나, 이 두 변인이 동시에 작용할 때 부모의 양육관련 변인 중 양육참여도의 양적인 측면 보다는 질적인 측면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더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가 아동의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동 발달을 도울 수 있는 긍정적인 태도와 행동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함을 나타내 주는 결과라 생각된다.

현대사회의 아동은 더욱 경쟁적이고 이기적이며 남을 돕거나 배려할 줄 모르는 아동으로 자라 사회생활을 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과거엔 유아의 사회적 발달을 위한 예방으로 이기심, 폭행, 불신 같은 부정적 문제의 해결이 중요하였기 때문에 반사회적 행동연구에 치중했지만 최근에는 부정적 행동이 발생하기 전에 긍정적 행동, 즉 친사회적 행동을 조장하기 위한 연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Honig, 1996). 그러므로 친사회적 행동을 도울 수 있는 가정 관련 변인이 앞으로 더욱 다양한 각도

로 연구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며, 특히 어머니의 역할과 더불어 아버지의 역할 또한 강조될 필요성이 있다.

한편 본 연구는 일부 도시 지역의 아동만을 대상으로 했으므로 그 결과를 전체 아동에게 일반화 하는데 무리가 있을 수도 있으며, 부모의 양육행동 및 양육참여도를 실제 관찰이 아닌 질문지만을 통해 측정했으므로 그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양육참여도가 취학전아동의 친사회적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함으로써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참여도가 아동의 친사회적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를 제공했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를 통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관련 변인들을 기초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후속 연구들에서는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것들 이외에 아동의 친사회적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중요한 관련 변인들, 특히 다양한 환경 변인들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또한 부모의 양육행동은 계층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는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고려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친사회적 행동을 측정하는 방법을 관찰법이나 또래평가를 포함하여 보다 다양하게 시도할 필요가 있으며, 양육행동과 양육참여도에 대한 부모보고와 부모의 실제 행동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추후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를 통해 취학전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은 어머니,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보다 양육행동과 더 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특히 어머니의 온정수용적 행동과 아버지의 거부제재적 행동이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인으로 나타났으므로 어머니와 아버지가 좀 더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양육행동과 격려하는 일이 필요하며, 자녀와의 양적인 상호작용 보다는 질적인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바람직한 부모-자녀 관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이제까지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들이 어머니 중심으로 구성, 실시되어온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함께 포함시키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어머니,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대하는 일 또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어머니, 아버지 역할 비교에 대한 다양한 연구의 수행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주제어 : 양육행동, 양육참여도, 친사회적 행동, 어머니와 아버지

참고문헌

- 권연희 박경자(1997). 친사회적 행동의 사회화에 있어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역할.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논집, 11, 91-101.
- 김내식(2005).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과의 상관관계.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순애(2001). 어머니의 특성에 따른 양육행동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신(2000). 아버지 양육태도와 양육참여도에 따른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범혁(1999).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취학전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연(2002).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남아의 공격성 간의 관계 및 세대간 전이. 아동학회지, 23(5), 35-50.
- 박영애(1995).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정원(2003). 아버지의 자녀 양육 참여에 따른 유아의 대인문제해결사고의 차이.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혜경, 박성연(2002).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남아의 정서조절능력과 공격성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0(8), 87-98.
- 서동미(1996).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숙란(2007). 유아의 성별, 연령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승희, 이은혜(2004). 아동의 또래유능성과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 및 어머니 양육 행동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2(4), 167-177.
- 양진숙(1991). 초등학교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의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은주영, 류도희, 이귀옥(2001). 부의 양육참여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에 관한 고찰. 경성대학교 논문집, 22(1), 323-334.
- 이원영(1983). 어머니의 자녀교육관 및 양육태도와 유아발달과의 관련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원영, 박찬옥, 노영희(1993). 유아의 사회성 발달 프로그램 개발연구. 유아교육연구, 13(1), 65-91.
- 이형덕(2000). 유아의 성, 출생순위 및 부모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덕성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화용(1989).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 성숙도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영숙, 강경석, 김희정(2003). 유아의 연령 및 성별과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아동학회지, 24(4), 41-53.
- 정경화(2004).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및 인기도와 관계.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현희(1990).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현희, 최경순(1992). 아버지의 양육참여행동과 아동의 친사회적 도덕판단능력. 한국아동학회지, 13(1), 38-51.
- 조복희(1999). 유아발달. 서울: 교육과학사.
- 조세영(2000). 아버지의 양육태도, 교육수준, 직업과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경순(1992).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도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윤정, 이기숙(1999). 그림동화책 읽어주기와 토의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및 추론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0(3), 275-291.
- 한국유아교육학회(1996). 유아교육사전(용어편), 서울: 한국사전연구사.
- Bate, T.E. Maslin, C. A. & Frankel, K. A.(1988). Attachment security, mother-child interaction, and temperament as predictors of behavior problems ratings age three year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299(50), 167-186.
- Baumrind, D.(1971). Current patterns of parental authority. *Developmental Psychology Monographs*, 1, 1-103.
- Bryant, B. K., Crokenberg, S. B.(1980). Correlates and dimensions of prosocial behavior: A study of female sibling with their mothers. *Child Development*, 51, 529-544.
- Cohn, D.A. (1990). Child-mother attachment of six-years-old and social competence at school. *Child Development*, 61, 152-162.
- Daum, J. M. (1983). Father's absence & moral development of male delinquents. *Psychological Reports*, 53, 223-228.
- Hoffman, L. W.(1977). Changes in family roles socialization and sex differences, *American Psychologist*, 32, 644-658.

- Hoffman, M. L.(1971). Father-absence and conscience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4, 400-406.
- Honig, A. S.(1996). Helping children become more prosocial: Ideas for classrooms, families, schools, and communities. *Young Children*, Jan, 62-70.
- Kostelnik, M. J., Stein, L. C., Whiren, A. P., & Soderman, A. K.(1993). *Guiding children's social development*. Delmar Publishers Inc.
- Ladd, G. W., & Profilet, S. M.(1996). The child behavior scale : A teacher-report measure of young children's aggressive, withdrawn, and prosocial behaviors. *Developmental Psychology*, 32(6), 1008-1024.
- Lamb, M.E.(1986). *The Father's Role : Applied Perspective*. New York : Wiley, 3-57.
- Maccoby, E. E.(1980). *Social development*. New York : Harcourt Brace Jovanovich.
- McGraw, K. O.(1987). *Developmental Psychology*. Florida : Harcourt Brace Jovanovich.
- Mullis, R. L., Smith, D. W., & Vollemen, K. E.(1983). Prosocial behaviors in young children and parental guidance. *Child Study Journal*, 13, 13-21.
- Sparks, A. D., Thornburg, K. R., Ispa, J. M., & Gray, M. M.(1984). Prosocial behavior of young children related to parental child rearing attitudes. *Early Childhood Development and Care*, 15, 291-298.
- Stevens, J. H. & Mathews, M.(1978). *Mother-Child/Father-Child Relationship*. New York : NAEYC.

(2009. 3. 2 접수; 2009. 6. 14 채택)

